



MMCA Film & Video

국립현대미술관
MMCA필름앤비디오

디어 시네마 2: 앤 샬롯 로버트슨

Dear Cinema 2: Anne Charlotte Robertson

2018. 6. 6. – 6. 10.

2018 디어 시네마

디어 시네마 1: 저우 타오
2018. 5. 23. – 26.

디어 시네마 2: 앤 샬롯 로버트슨
2018. 6. 6. – 10.

디어 시네마 3: 권병준, 임민욱
2018. 6. 13. – 16. / 2018. 6. 20. – 23.

디어 시네마 4: 백종관, 손광주, 엘리 허경란,
김아영, 오톨리스 그룹
2018. 8. – 9.

커버 이미지 Cover image
앤 샬롯 로버트슨, 〈1976년의 정신〉(1979)
Anne Charlotte Robertson, *Spirit of '76*, 1976

모든 이미지 All images
© 하버드 필름아카이브 소장
Courtesy of the Harvard Film Archive

디어 시네마 2: 앤 샬롯 로버트슨

2018 Dear Cinema

Dear Cinema 1: Zhou Tao
May 23 – 26, 2018

Dear Cinema 2: Anne Charlotte Robertson
June 6 – 10, 2018

Dear Cinema 3: ByungJun Kwon, Minouk Lim
June 13 – 16, 2018 / June 20 – 23, 2018

Dear Cinema 4: Jongkwan Paik, Kwang-Ju Son,
Ellie Kyungran Heo, Ayoung Kim,
The Otolith Group
August – September, 2018

상영시간표

수요일 WED	목요일 THU	금요일 FRI	토요일 SAT	일요일 SUN
6. 6. Program ❶	6. 7. Program ❷	6. 8. Program ❸+❹	6. 9. Program ❹+❺	6. 10. Program ❻
15:00 ❶.❶ 60 min.	15:00 ❷.❶ 64 min.	14:00 ❸.❶ 61 min.	14:00 ❹.❶ 67 min.	14:00 ❺.❶ 81 min.
16:30 ❶.❷ 64 min.	16:30 ❷.❷ 67 min.	16:00 ❸.❷ 81 min.	16:00 ❹.❷ 64 min.	16:00 ❺.❷ 81 min.
		17:30 ❺.❶ 헤이든 게스트 Haden Guest	17:30 ❺.❷ 유순미 Soon-Mi Yoo	

강연

❺.❶
일시 2018. 6. 8. (금) 17:30–19:30
장소 MMCA 필름앤비디오 영화관
강연자 헤이든 게스트 하버드 필름아카이브 디렉터
주제 앤 샬롯 로버트슨의 5년간의 일기

❺.❷
일시 2018. 6. 9. (토) 17:30–19:30
장소 MMCA 필름앤비디오 영화관
강연자 유순미 감독, 메사추세츠 예술대학 필름앤비디오과 교수
주제 여성 필름메이커들과 일인칭 시점 영화 전통

Screening Schedule

Lecture

❺.❶
Time Friday, June 8, 17:30–19:30
Venue MMCA Film & Video
Lecturer Haden Guest Director, Harvard Film Archive
Subject Five Year Diary by Anne Charlotte Robertson

❺.❷
Time Saturday, June 9, 17:30–19:30
Venue MMCA Film & Video
Lecturer Soon-Mi Yoo Professor, Massachusetts College of Art and Design
Subject Women Filmmakers and First-Person Cinema Traditions

Dear Cinema 2: Anne Charlotte Robertson

앤 샬롯 로버트슨의 다이어리필름 (1949 – 2012)

앤 샬롯 로버트슨의 작은 아파트 거실. 그녀가 테이블 앞에 앉으면 어깨 너머로 반쯤 열린 침실이 보인다. 그녀는 타이프라이터로 글을 쓰다 책을 읽고, 어느 순간 두부와 채소요리를 시작하고 디저트를 만들어 먹는다. 기르는 고양이가 한 마리가 한가롭게 주변을 어슬렁 거린다.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일상의 기록은 그녀가 어머니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자연과 함께 하는 보다 평온한 모습으로 변한다. 그러나 텃밭에 심은 멜론을 수확하고 조카 에밀리가 놀러오곤 하는 소박한 행복의 순간들은 세 살밖에 안된 에밀리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함께 사라진다. 슬픔과 함께 나날이 체중이 늘어가는 로버트슨은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외친다. 늘어나는 몸무게, 알코올, 신경쇠약으로 얼룩진 말년의 로버트슨의 삶은 있는 그대로 영화가 된다.

메사추세츠에서 평생을 살며 슈퍼 8mm 카메라로 자신의 삶을 기록했던 앤 샬롯 로버트슨. 그녀의 다이어리필름은 세계와 영화에 대한 주관적 생각들을 담아내는 보통의 에세이영화와는 달리 카메라 렌즈와 움직임이 마치 작가의 몸인 것처럼 본능적으로 삶의 매 순간을 기록한다. 호흡, 탄식, 날것 그대로 담기면서도 그녀의 영화는 사적 일화의 채집 또는 순간의 포착에 그치지 않는다. 복합적으로 구성된 로버트슨의 보이스오버, 그녀의 과격한 얼굴 클로즈업은 자기연민의 도취, 비애와 같은 작가의 감정조차 영화의 순수한 본질에 맞게 한다.

자신의 전 존재, 단순하지만 깊고 강렬한 감정으로 이루어진 이 존재가 통과해간 보통의 삶. 나이와 함께 아름다움을 잃어간다고 느끼며 사랑의 상실감으로 아파하는 외로운 영혼의 목소리가 곧 영화의 숨결이 된다. 카메라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고 오로지 자신의 눈으로만 세계를 관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카메라를 통해 바라보는 자는 과연 누구인지, 앤 샬롯 로버트슨의 영화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MMCA필름앤비디오 《디어 시네마》제 2장은 앤 샬롯 로버트슨의 작품과 연계해 일인칭 시점 영화가 확장하는 영화의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보고자 두 번의 강연을 개최한다. 첫 번째 강연으로 앤 샬롯 로버트슨의 전작을 디지털 복원한 하버드 필름 아카이브 디렉터 헤이든 게스트가 복원과정을 비롯해 앤 샬롯 로버트슨의 작품세계와 실험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메사추세츠 예술대학 필름앤비디오과에 재직 중인 유순미 교수가 일인칭 시점 영화의 전통들을 언급 하면서 특히 여성 필름메이커들의 작업과 관련한 연구를 소개한다.

김은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The Diary Films of Anne Charlotte Robertson (1949 – 2012)

A small living room in an apartment. As Anne Charlotte Robertson sits at a table, her bedroom comes into view over her shoulder. She writes something on a typewriter, reads a book, then at some point cooks a tofu and vegetable dish and eats a dessert. Her cat casually strolls around. This daily documentary which was repeated in the same pattern is changed into calmer and more peaceful scenes with nature after Robertson moved to her mother's house. Harvesting melons from her garden and relaxing with her niece Emily, she enjoys simple happy moments. But the happiness is gone with the sudden death of Emily, who was only three years old. In her grief, Robertson gains weight day-to-day and shouts to herself asking where her true love is. The latter years of her life, marked by uncontrollable weight gain, alcohol use, and nervous breakdowns, become a film in themsel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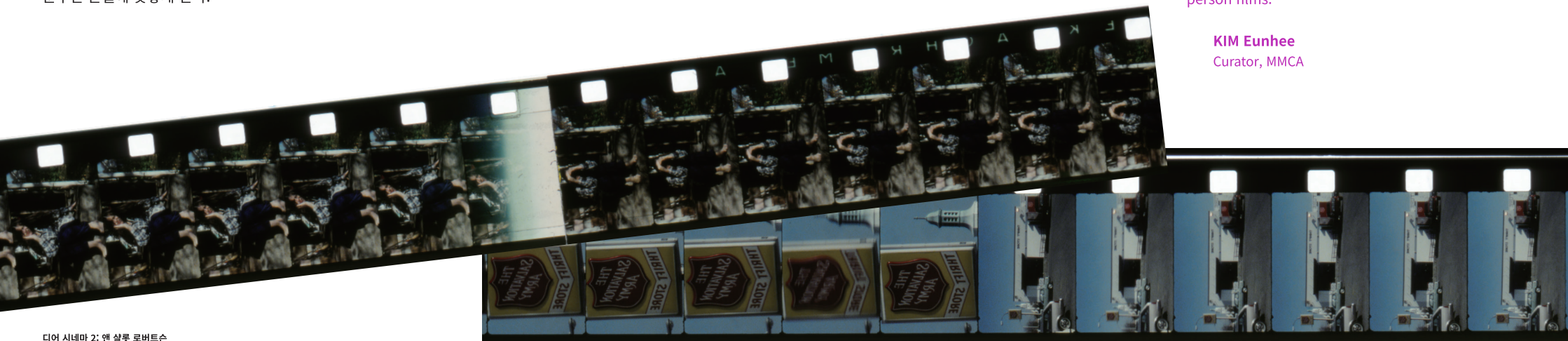
Living her entire life in Massachusetts, Robertson filmed her life with a Super-8 camera. Unlike other essay films which contain subjective thoughts about the world and cinema, her diary films record moments of life instinctively as if the movement of the camera was that of the artist's own body. While capturing the rawness of breath, exclamation and sigh, Robertson's films are more than a collection of personal episodes or a portrayal of intimate moments.

The artist's complex multilayered voice-overs and extreme close-ups of her face thrust into the camera do not only linger on her absorption in self-pity and sadness. They sublimate the artist's feelings into the pure nature of film. The artist's entire existence, and the passing of a normal life consisting of simple but deeply intense emotions, the voice of a lonely soul in pain from the loss of love and youthful beauty, all of these breathe life into her films. What happens when one opens oneself in front of a camera and observes the world only with one's own eyes? Who is looking through the camera? Robertson's films bring up many questions.

MMCA Film and Video, as the second chapter of a screening program of *Dear Cinema*, hosts two lectures to rethink the possibility of cinema's extension through first-person film, focusing on Ann Charlotte Robertson who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her life and film. Firstly, Haden Guest who, as the Director of Harvard Film Archive, led the project to preserve Robertson's work, joins us to talk about the preservation process, the artist's oeuvre and experimentation. Secondly, Soon-Mi Yoo, Associate Professor of Film and Video at Massachusetts College of Art and Design, introduces her research concerning works by female filmmakers and also the traditions of first-person films.

KIM Eunhee

Curator, MMCA



앤 살롯 로버트슨의 5년간의 일기

앤 살롯 로버트슨(1949–2012)은 독립영화 감독이라는 말에 새롭고도 서글픈 의미를 부여했다. 로버트슨의 작품을 독립영화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것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제도적 지원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혼자 살았고 대부분의 작업을 홀로 했던 여자, 예술가로서 자신의 극단적인 독립성에 대해 그의 영화가 가슴 아플만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로버트슨의 외로움과 병적인 조울증과의 투쟁은 영화의 다양한 구조 안에, 특히 그의 대작 〈5년간의 일기〉속에 밀접하게 짜여져 있다. 〈5년간의 일기〉는 1981년에 시작해 17년 후에 완성된, 로버트슨의 삶에 대한 서른 여섯 시간짜리 연대기이다.

〈5년간의 일기〉는 감독 자신의 변화 모습, 특히 오르락내리락하는 몸무게를 꼼꼼히 관찰하고 측정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전체 82부 — 로버트슨이 원하는 대로 말하자면 82개의 릴 — 로 구성된 야심찬 일인칭 서사 장편영화가 되었다. 이 작품은 친척집 방문, 신경쇠약, 가족의 충격적인 죽음과 같이 주로 크고 작은 사소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카메라를 자신의 일상을 향해 돌려놓음으로써 로버트슨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자기치유법을 발견했고, 이는 서로 겹쳐지는 음성 대화들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로버트슨은 자신의 이미지에 솔직한 해설을 더하고는 했는데, 어떤 해설은 〈5년간의 일기〉를 상영하는 중에 실시간 퍼포먼스로 했던 것을 후에 덧붙였다. 이와 같은 솔직한 해설은 로버트슨의 세계를 정의하는 깊고 불안정한 감정들을 드러냄과 동시에 따뜻하고 자기 비판조의 유머감각에 풍성한 목소리를 더한다.

〈5년간의 일기〉는 다양한 테크닉과 방식들을 끊임없이 실험한 예술가의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진화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기도 하다. 로버트슨은 대립적이고 감정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낱것부터 서정적이고 차분하며 절제된 것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복합적인 작품 세계를 창조해냈다. 이번 개괄적 회고전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상영을 위해 특별히 기획한 것으로, 여덟 파트로 구성된다. 로버트슨이 매사추세츠 예술대학 대학원에서 수학하기 이전에 만든 초기 작품부터 학창 시절에 만든

작품까지 폭넓게 보여주며, 〈5년간의 일기〉를 선보이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로버트슨의 영화 대부분이 대학원 재학 중, 또는 그 이후에 만들어졌지만 영화 제작에 대한 로버트슨만의 독특한 시각과 접근법은 영화 학도가 되기 이전에 만든 첫 작품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로버트슨을, 린 쿡의 말을 빌리면 ‘특이한 사람’, 전위의 중심과 아웃사이더 예술가의 모호한 주변부 사이의 비옥한 공간을 찾는 예술가로 봐야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로버트슨은 아방가르드 영화를 비롯해 마리 멘켄이나 요나스 메카스 같은 중요 감독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지적이고 의미 깊은 대화를 나누는 동시에, 자신의 유일 한 삶의 경험에 확고부동하고 일관되게 집중했다.

앤 살롯 로버트슨은 2012년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자신의 영화와 글들을 하버드 필름아카이브에 기증했다.

헤이든 게스트

하버드 필름아카이브 디렉터,
하버드대학교 시각환경학부 부교수

Five Year Diary by Anne Charlotte Robertson

Anne Charlotte Robertson (1949–2012) was an independent filmmaker who gave new and melancholy meaning to the term. For to call Robertson’s cinema “independent” is to recognize not only the minimum financial or institutional support given to her work, but also the ways her films speak with poignant directness to her own extreme independence as an artist and woman who lived and worked largely alone. Indeed, Robertson’s struggles with loneliness and clinically diagnosed manic depression were integrally woven into the complex fabric of her films, most especially her magnum opus, *Five Year Diary*, a thirty-six hour chronicle of her life begun in 1981 and completed seventeen years later.

Intended first as a means to carefully monitor and measure her changing self-image, and her fluctuating weight in particular, Robertson’s *Five Year Diary* became an ambitious first-person epic comprised in total of eighty-two parts (or “reels”, as Robertson preferred), most often centered around single major and minor events—a visit to a relative, a nervous breakdown, the traumatic death of a family member. By turning the camera upon her daily life, Robertson discovered a mode of vital self-therapy most directly expressed through the multiple layers of spoken dialogue she frequently layered over her imagery, frank commentary (some of it performed live during screenings of the *Five Year Diary* and added later) that revealed the deep, unstable emotions that defined Robertson’s world, while also giving rich voice to her warm and self-depreciatory sense of humor.

The *Five Year Diary* also offers an important record of Robertson’s continuing creative evolution as an artist who restlessly experimented with various techniques and approaches throughout her career to create a complex oeuvre that spans from the confrontationally and emotionally raw to the lyrically quiet and understated. This expansive

eight-part retrospective, curated exclusively for the MMCA, presents the full range of Robertson’s extraordinary cinema, including early films made before she enrolled in graduate school at the Massachusetts College of Art and Design, as well as key student films, while offering a major showcase for the *Five Year Diary*. Although she made most of her work during and after graduate school, Robertson’s unique vision and approach to filmmaking was expressed immediately in her first works made before she was a film student. Robertson is perhaps best understood as an “outlier” to use Lynn Cooke’s term, an artist who navigated that rich interstitial space between the vanguard center and that ambiguous periphery associated with the outsider artist. In this way Robertson’s films engage in a rich and knowing dialogue with the avant-garde films and traditions embodied by touchstone directors such as Marie Menken and Jonas Mekas, while also maintaining a steadfast and vital fixity on her own singular life experience.

All works included in this retrospective come from the collection of the Harvard Film Archive to whom Anne Robertson bequeathed her films and papers shortly before her death in 2012.

Haden Guest

Director, Harvard Film Archive
Senior Lecturer, Department of Visual and Environmental Studies, Harvard University



특별 회고전 프로그램 구성:
하버드 필름아카이브 디렉터 헤이든 게스트

Program ①

①.① 60 min.

픽실레이션

Pixilation

1976 | 3 min. | Silent | B&W

1976년의 정신

Spirit of '76

1976 | 10min. | Silent | Color

나에게 말하기

Talking to Myself

1985 | 3 min. | Sound | Color

5년간의 일기 릴 22.

짊막한 연애(와) 미쳐감, 1982. 8. 23. - 9. 1.

Five Year Diary Reel 22.

A Short Affair (and) Going Crazy,
Aug. 23. - Sept. 1, 1982

1982 | 27 min. | Sound | Color

미안합니다

Apologies

1986 | 17 min. | Sound | Color

①.② 64 min.

잡지 입

Magazine Mouth

1983 | 7 min. | Sound | Color

카프카 카메라

Kafka Kamera

1985 | 3 min. | Sound | Color

5년간의 일기 릴 1.

시작 - 추수감사절, 1981.11.3. - 12.13.

Five Year Diary Reel 1.

The Beginning - Thanksgiving,
November 3 - December 13, 1981

1981 | 27 min. | Sound | Color

5년간의 일기 릴 2.

똥똥함과 마름의 정의, 1981.12.13. - 22.

Five Year Diary Reel 2.

Definitions of Fat and Thin,
December 13 - 22, 1981

1981 | 27 min. | Sound | Color

Dear Cinema 2: Anne Charlotte Robertson

A special screening of eight-part retrospective presented
by Haden Guest, Director of the Harvard Film Archive

Program ②

②.① 64 min.

나에게 말하기

Talking to Myself

1985 | 3 min. | Sound | Color

출근

Going to Work

1981 | 7 min. | Sound | Color

5년간의 일기 릴 16.

1982. 6. 9. - 24.: 머지않아 실업자가 되는

Five Year Diary Reel 16.

June 9 - 24, 1982:

Soon to Be Unemployed

1982 | 27 min. | Sound | Color

5년간의 일기 릴 26.

1983. 2. 28. - 5. 20.: 대학원 첫 학기

Five Year Diary Reel 22.

February 28 - May 20, 1983:

First Semester Grad School

1983 | 27 min. | Sound | Color

②.② 67 min.

지하철

Subways

1976 | 13 min. | Sound | Color

5년간의 일기 릴 23.

신경쇠약과 정신병원 이후, 1982. 9. 1. - 12. 13.

Five Year Diary Reel 23.

A Breakdown and After the Mental Hospital,
September 1 - December 13, 1982

1982 | 27 min. | Sound | Color

5년간의 일기 릴 47.

1986. 10. 21. - 11. 2. :

나는 영화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Five Year Diary Reel 47.

October 21 - November 2, 1986:

I Thought the Film Would End

1986 | 27 min. | Sound | Color

Program ③

③.① 61 min.

로코모션

Locomotion

1981 | 7 min. | Sound | Color

5년간의 일기 릴 80.

1994. 5. 14. - 9. 26. : 에밀리가 죽었다

Five Year Diary Reel 80.

May 14 - September 26, 1994:

Emily Died

1994 | 27 min. | Sound | Color

5년간의 일기 릴 81.

1994. 9. 27. - 1995. 1. 29. : 에밀리를 애도하며

Five Year Diary Reel 81.

September 27, 1994 - January 29, 1995:

Mourning Emily

1994/95 | 27 min. | Sound | Color

③.② 81 min.

5년간의 일기 릴 28.

1983. 5. 25. - 6. 28. :

아파트를 떠나 엄마 집으로 들어가다

Five Year Diary Reel 28.

May 25 - June 28, 1983:

Leaving the Apartment and Moving Home

1983 | 27 min. | Sound | Color

5년간의 일기 릴 40.

1984. 7. 17. - 8. 26. :

할머니를 만나러 가다, 나의 정신이상과 와이오밍

Five Year Diary Reel 40.

July 17 - August 26, 1984:

*Visiting Grandmother, My Insanity
and Wyoming*

1984 | 27 min. | Sound | Color

5년간의 일기 릴 83.

1995. 12. 24. - 1997. 3. 19. : 무제

Five Year Diary Reel 83.

December 24, 1995 - March 19, 1997:

Untitled

1995/97 | 27 min. | Sound | Color

Program ④

④.① 67 min.

새벽

Dawn

1979 | 13 min. | Silent | Color

5년간의 일기 릴 83.

1995. 12. 24. - 1997. 3. 19. : 무제

Five Year Diary Reel 83.

December 24, 1995 - March 19, 1997:

Untitled

1995/97 | 27 min. | Sound | Color

멜론 텃밭, 또는 살아갈 이유

Melon Patches, or Reason to Go on Living

1998 | 27 min. | Sound | Color

④.② 64 min.

우울증 집중하세요

Depression Focus Please

1984 | 4 min. | Sound | Color

5년간의 일기 릴 71. 보호관찰

Five Year Diary Reel 71. On Probation

1990 | 27 min. | Sound | Color

5년간의 일기 릴 31.

1983. 8. 19. - 28. : 나이아가라 폭포

Five Year Diary Reel 31.

August 19 - 28, 1983:

Niagara Falls

1984 | 27 min. | Sound | Color

나의 고양이, 나의 정원, 그리고 9.11

My Cat, My Garden, and 9/11

2001 | 6 min. | Sound | Color

Program ⑤

〈5년간의 일기〉모음 Selected from *Five Year Diary*

⑤.① 81 min.

5년간의 일기 릴 2.

똥똥함과 마름의 정의, 1981.12.13. - 22.

Five Year Diary Reel 2.

Definitions of Fat and Thin,

December 13 - 22, 1981

1981 | 27 min. | Sound | Color

5년간의 일기 릴 22.

짤막한 연애(와) 미쳐감, 1982. 8. 23. - 9. 1.

Five Year Diary Reel 22.

A Short Affair (and) Going Crazy,

Aug. 23. - Sept. 1, 1982

1982 | 27 min. | Sound | Color

5년간의 일기 릴 47.

1986. 10. 21. - 11. 2. :

나는 영화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Five Year Diary Reel 22.

October 21 - November 2, 1986:

I Thought the Film Would End

1986 | 27 min. | Sound | Color

⑤.② 81 min.

5년간의 일기 릴 31.

1983. 8. 19. - 28. : 나이아가라 폭포

Five Year Diary Reel 31.

August 19 - 28, 1983:

Niagara Falls

1984 | 27 min. | Sound | Color

5년간의 일기 릴 80.

1994. 5. 14. - 9. 26. : 에밀리가 죽었다

Five Year Diary Reel 80.

May 14 - September 26, 1994:

Emily Died

1994 | 27 min. | Sound | Color

5년간의 일기 릴 81.

1994. 9. 27. - 1995. 1. 29. : 에밀리를 애도하며

Five Year Diary Reel 81.

September 27, 1994 - January 29, 1995:

Mourning Emily

1994/95 | 27 min. | Sound | Color

관람시간

월, 화, 수, 목, 일: 10am – 6pm
금, 토: 10am – 9pm

MMCA필름앤비디오 관람시간

수, 목, 일: 10am – 6pm
금, 토: 10am – 9pm

입장료

서울관 통합관람권: 4,000원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무료
금, 토 야간개장 시 무료관람(6pm – 9pm)

주차

운영시간(매일): 8am – 11pm
시간당 2,000원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협력

하버드 필름아카이브

Opening Hours

Mon, Tue, Wed, Thu, Sun: 10am – 6pm
Fri, Sat: 10am – 9pm

MMCA Film & Video Opening Hours

Wed, Thu, Sun: 10am – 6pm
Fri, Sat: 10am – 9pm

Admission Fee

Entrance Ticket: 4,000 won
Under 24s or over 66s: Free
Free admission every Friday & Saturday from 6pm – 9pm

Parking

Daily Hours: 8am – 11pm
2,000 won per hour

Organiz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In Partnership with

Harvard Film Archive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03062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
02 3701 9500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03062 3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82 2 3701 9500

www.mmca.go.kr/filmandvideo

www.mmca.go.kr/mmcachannel

twitter.com/mmcakorea

[instagram.com/mmcakorea](https://www.instagram.com/mmcakorea)

[facebook.com/mmcakorea](https://www.facebook.com/mmcakorea)

[youtube.com/mmcakorea](https://www.youtube.com/mmcakorea)

tv.naver.com/mmca